2026
KÓKKOS 11



NOVEMBER 2026
VOL. 295

▲ '하나의 공, 하나의 마음, 함께 만드는 승리!'

30일 초안산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된 체육대회의 공넘기기 경기에서 선수들이 머리 위로 커다란 공을 함께 밀고 받고 힘을 모으는 모습에서 협동의 가치와 함께하는 즐거움이 빛난다. [관련 기사 3면]

• 코코스는 '한 알의 밀'을 의미 • 발행인 최정권 • 편집주간 이강동 •
한국성서대학교 KOREAN BIBLE UNIVERSITY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 TEL 02-950-5401 • www.bible.ac.kr •

2026년 10월 대학정보공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등 4개 항목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정)는 지난 10월 29일 대학정보공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공시에는 학교, 학생, 재정의 3개 분야에서 15개 항목이 공시되었는데 이 중에서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 ▲ 기숙사 수용률 순으로 총 4개 항목에 대해 분석하였다.

① 사립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2026년 사립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96.2%로 2025년(100.5%)보다 4.3%p 감소했다. 우리 대학은 179.9%로 전년(182.3%)보다 2.4%p 감소했지만 대학 순위에서는 상위 14.7%에 위치하고 있다.

②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2025년 사립대학(법인)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3.1%로 2024년(54.3%)보다 1.2%p 감소했다. 이에 비해 우리 대학은 88.2%로 전년 88.8%보다 0.6%p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전국 사립대학 중 상위 28.9%에 위치하여 비교적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③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

우리 대학의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79,932원으로 전년 2024년(84,942원)보다 5.9% 감소했다. 반면 국공립대학은 5.4%상승, 213,210 원이고 사립대학은 5.9% 상승 213,210원이었다.

④ 기숙사 수용률

2026년 기숙사 수용률은 21.7%로 2025년(22.2%)보다 0.5%p 감소했다. 우리 대학은 17.5%로 전년(17.8%)보다 0.3%p 소폭 감소했다.

	지표명	공시년도	한국성서대	평균	순위	위치(%)	상승하락	상위 20%
1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현황(%)	2026	179.9	96.2	23/156	14.7	⇧	v
		2025	165.6	100.5	26/156	16.7		
2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2026	88.2	53.1	45/156	28.9		
		2025	88.8	54.3	44/155	28.4		
3	학생1인당 도서관 자료구입비(원)	2026	79,932	157.697	103/184	56	⇩	
		2025	84,942	152.443	97/184	52.7		
4	기숙사 수용률(%)	2026	17.5	21.7	121/184	65.8	⇧	
		2025	17.8	22.2	124/184	67.4		

미니설교



거룩한 마중물 (요 1:40~42)

구광면 목사(교목실)

성경에는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그날 밤,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요한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서로 친족 관계였습니다.(눅1:36)

세례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가장 먼저,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 한 번의 설교로 3천 명을 회개시키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가 됩니다.

내가 전한 가족 한 사람이 장차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안드레의 짧은 발걸음과 고백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리더로 세우는 거룩한 마중물이 되었듯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에게서 가족에게로 흘려보내는 거룩한 마중물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와 찬양 문화 스포츠가 어우러진 축제 한마당

W!sh 총학생회 '크리스천 데이' 청춘 질주

종교개혁 509주년을 맞아 제42대 W!sh 총학생회(회장 이금주)가 'SYNC, 하나님과 내 삶을 다시 맞추다' 주제의 크리스천 데이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10월 29일~30일 예배와 찬양, 문화와 스포츠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29일 - 크리스천 데이 'SYNC, 하나님과 내 삶을 다시 맞추다'

종교개혁기념예배에 조현진 목사는 "루터가 성경을 통해 '오직 믿음'을 깨달았듯,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선행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 오늘날 교회의 회복도 자신이 말씀 앞에 서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종교개혁의 정신에 따라 말씀을 삶의 기준에 맞춰 행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 줄 것"을 전하였다.

찬양대회가 로고스홀에서 열렸으며 영예의 1등은 '무디와 생키'팀(이새빈 외), 2등 에는 '주춤'팀(이주찬 외 9명), 3등은 '주리다'팀(김승기)이 차지하였다. 초청 아티스트에 시소(SISO)가 '사랑이 아닌 단어로 사랑을 말했어'와 '그애에게'를 통해 감성적인 무대를 선보였고, 캔트비블루 밴드는 '사랑이라 했던 말 속에서'와 '상사화' 등을 열창하며 학우들의 눈과 귀를 사로 잡았다.

낮은 마당에 동아리들이 마련한 부스에서 음료와 먹거리를 나누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고, 외부 푸드트럭도 풍성한 먹거리로 행사에 활기를 더했다. 다만 종일 쌀쌀한 날씨와 바람으로 야외 활동이 다소 위축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30일 - 체육대회 '청춘질주'

초안산스포츠타운에서 '청춘질주'를 주제로 체육대회가 펼쳐졌다. 흑팀(사복·간호·AI)과 백팀(성서·영보)이 발야구와 줄다리기 등 10개 종목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승부가 이어졌다. 초반 공넘기기와 공굴리기에서 흑팀이 연승하며 기세를 올렸지만, 발야구와 미션달리기에서 패하며 다시 동률이 됐다. 이후 단체줄넘기와 줄다리기, 축구에 이어 마지막 혼성계주까지 백팀이 승리를 잡으면서 종합전적 8대 2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경기 중간에는 댄스팀의 역동적인 공연이 펼쳐져 활력을 더했으며, 학과별로 하나된 응원과 단합된 모습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마지막에는 디지털 기기와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경품추첨이 진행돼 많은 학우에게 행운을 선사하며 이틀간의 크리스천 데이를 즐겁게 마무리했다.



▲ 캔트비블루 밴드가 열창하고 있다.



▲ 백팀 응원단이 환호하고 있다.


▲ 네컷부스에서 사진찍는 최정권 총장과 학우

총장–외국인 유학생 간담회

한국어 습득을 위해 과감히 소통



▲ 간담회를 다 마친 참석자들이 함께 모여 손하트를 날리고 있다.

2026년 총장과 외국인 유학생 간담회가 21일 오후 밀알관 회의실에서 국제교류센터(센터장 윤석훈) 주관으로 열렸다. 간담회에는 우린 철먼(컴소4, 몽골)을 비롯한 24명의 유학생이 학업의 어려움을 나누고, 총장의 격려와 당부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유학생들은 입학 초기 한국어가 충분하지 않아 대학 정보 취득에 어려웠다고 전했다. 또한 수업과 시험에 대비한 영어 학습자료, 개별 상담을 통한 학업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었다. 이밖에 교내 안내 표지와 유학생을 위한 정보 제공의 체계적인 개선도 함께 관심 가져 달라고 말하였다.

최정권 총장은 유학생들이 제기한 고충에, 깊이 공감하며 상담 및 지원 창구 일원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어 습득을 위해 재학생들과 교류 확대, 영어 학습자료 및 교수진과 연계한 학업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 아울러 교내 안내 표지와 정보 전달 체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하였다. 최 총장은 “한국어 습득을 위해 소통하는 열의를 보일 때 재학생도 함께할 것이라며 유학 기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렵겠지만 학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윤석훈 국제교류센터장은 유학생들의 졸업 규정과 TOPIK 관련 사항, 비자 연장 등 필요한 주요 제도와 절차를 안내했다.

현재 학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전체 24명이며 출신 국가는
몽골 6명, 중국 4명, 베트남 3명, 르완다 2명, 캄보디아 2명, 파키스탄 2명,
네팔 1명, 우스베키스탄 1명, 이란 1명, 카자흐스탄 1명, 케냐 1명이다.

“하나님께 이후의 삶을 맡기려 한다”

르완다에서 온 그레이스와 레베카



▲ 잔디밭에서 나란히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그레이스(왼쪽)와 레베카

영유아보육학과(1)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는 아프리카 르완다 출신의 레베카와 그레이스를 만났다. 두 학생은 모태신앙이며 사역 중인 한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우리 대학에 왔고 아이들을 좋아해 영유아보육학과를 택했다.

레베카는 “한국에 유학 온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한다. 레베카는 IT 분야에도 관심이 많다며 학부 졸업 후 대학원에서 실력을 키워 고국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게 꿈. 그레이스도 학업을 마치면 돌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전파하겠다며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둘은 2년 전 한국에 왔을 때는 인사말 외에 한국말을 전혀 몰라 어려웠는데 이젠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발전했다. 우리 대학의 외국인 프로그램과 멘토링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시야를 보게 해 줬다며 교수님과 학우, 구성원 모두의 도움과 격려에 따뜻한 감사를 전했다.

레베카와 그레이스는 “우리를 성서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사용 해 가실지 그분의 뜻에 맡기려 한다. 주님 안에 속한 기도의 삶을 실천하며 하루하루를 값지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두 학우가 우리 대학교에서 학문과 신앙을 깊게 배운 후 르완다의 다음 세대를 위해 열정을 쏟겠다는 비전 앞에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을 간구한다.

박세윤 · 제갈륜(4) 학우 'Sentra' 대상

총장배 AI융합 경진대회 졸업작품전시회에 30개 팀 참가



▲ 최정권 총장에게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는 임선아 학우

「제22회 AI융합학부 졸업작품전시회」 및 「제21회 총장배 AI융합경진대회」 수상작품이 29일 오후 고승태홀에서 전시되었다.

총장배 AI융합경진대회에는 총 7개 팀(15명)이 참여하였으며, 대상은 박세윤, 제갈륜(4) 학우의 'Sentra'가 차지하였다. 'Sentra'는 자연어 질문을 통해 분산된 운영 데이터를 분석하고, 과거 장애 사례 검색과 복구 작업 실행을 지원하여 운영자의 효율적인 장애 대응을 돕는 플랫폼으로 완성도 면에서 호평을 얻었다. 금상은 김지호(4) 학우의 'RoadCam'과 정준영, 채동욱, 노창준, 이성용, 김윤하(3) 학우의 'ETC'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졸업작품전에는 총 30개 팀(34명)이 참여했다. 학우들은 4년간의 학업을 통해 갈고 닦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용성을 담아낸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임선아 학우의 '대학 KPI 사전 예측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작품은 대학알리미 공시 데이터를 활용해 23개 핵심성과지표(KPI)의 자동 계산이 가능하며 변화된 지표를 시뮬레이션으로 파악, 대학이 공시 전에 전략을 미리 수립하도록 돕는다.

작품을 둘러본 최정권 총장은 "4학년 학우들의 작품 기량이 해마다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었다"며 열정을 쏟아준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AI융합인의 밤

끈끈한 결속과 정을 확인



▲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AI융합인들

'2026 AI융합인의 밤'이 29일 오후 6시 갈멜관 305호에서 재학생과 교수진, 동문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진호 AI융합학부장이 "성서대 AI융합인의 기술적 성장과 단합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자"고 인사하였다.

자바학회(학회장 송준서 3)가 주관한 미니게임과 레크리레이션에서 재학생들의 현란한 마술과 수준급 기타 연주, 1학년 학우들의 노래까지 끼와 재능이 더해져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행운의 경품추첨이 이어져 모두에게 유쾌함을 안겼고 이후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며 AI만의 끈끈한 결속과 정을 확인시켜 준 융합인의 밤이 되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전공 선택 자율권 교양 및 전공 교육 강화'에 초점

대학혁신사업단(단장 강규성)이 2026년도 2차 자율혁신계획서를 22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였다.

자율혁신사업계획의 주요 골자는 'AI융합학부의 전공자율선택제를 2027년까지 정원의 60명까지 확대하고 1학년 1학기 복수전공 조기 신청, 전과 여석 확대, 나노디그리 활성화 등 학생들의 전공 선택 자율권을 강화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교양 및 전공 교육의 질 관리 고도화 작업도 함께 추진된다. '인성·융합·디지털·공동체' 중심의 교양 교육과정을 개편, 3대 교양 마이크로 디그리와 글쓰기·영어·디지털/AI 기초역량 인증제 시행, 학생-교수 간 공동연구를 발전시켜 '연구형 학점제'를 정착시켜 갈 방침이다.

또한 학생 맞춤형 지원과 인프라 구축도 함께 진행된다. 전 학과에 학사지도교수(AA) 배치와 중도탈락 위기 학생의 선제 발굴 및 심리·학습·취창업을 통합 지원이 이뤄진다. 더불어 AI융합 전용 건물(갈멜관) 지정, GPU 기반 AI 실습실 확충, 대학 자체 교수법(KBU-LC+) 적용을 통해 미래형 교육 환경을 구축하게 되는데 전체 사업비는 약 14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제12회 총장배 성경암송대회

영예의 1등 남궁이레(4) 학우



「제12회 총장배 성경암송대회」가 29일 로고스홀에서 열렸다. 83명의 학우가 참가해 3개 라운드에 걸쳐 실력을 겨뤘다. 1라운드는 객관식과 OX, 초성 문제 등으로 기본적인 성경 지식을 확인, 2라운드에서는 한층 높은 난도의 심화 문제로 참가자들의 성경 이해도를 평가했다. 최종 라운드에서는 참가자가 직접 선택한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암송한 글자 수에 따른 점수 부여 방식으로 최종 우승자를 가렸다. 영예의 1등은 남궁이레(4) 학우가 차지했으며, 2등 이효정(4), 3등 이만효(4) 학우가 기쁨을 누렸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정성껏 준비한 성경 구절을 한마디 한마디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통한 은혜를 나누었다. 특히 결승 라운드에서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 이어져,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 성서학과 학우들이 성경을 읽는 포즈로 말씀의 중요성을 다짐하고 있다.

대학원 종교개혁기념예배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내부의 세속화와 안일함"



▲ 전광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대학원 종교개혁기념예배가 26일 오후 6시 30분 로고스홀에서 열렸다. 안창선 교학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전광수 목사(총신대 교수)가 '이스라엘의 적 이스라엘'(신 31:14~16)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전 목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을 외부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언약을 잊어가는 이스라엘 자신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외부보다 내부의 세속화와 안일함이라며 이를 경계하고 스스로를 냉철히 돌아보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모두 509년 전 외친 종교개혁의 본질을 되살려 자신과 교회를 끊임없이 돌아보며 개혁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자"고 전했다. 김예진 원우가 말씀을 배우고 아는 걸 넘어 실천하면서 주의 형상을 닮는 지체들이 되자고 기도했다.

예배 후 열린 대학원 세미나는 다음과 같다.

▲ 일반대학원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주제 : 16-17세기 종교개혁사의 입체적 읽기와 현대 목회자의 역사적 자기인식
일시 : 10월 26일 밀알관 로고스홀
강사 : 전광수 교수(총신대 신대원, 역사신학 겸임)

▲ 일반대학원 간호학

주제 : 돌봄의 소명 : 환자 안전을 위한 감염관리
일시 : 11월 6일 14:00 일립관 509호
강사 : 최지연 팀장(중앙대병원 감염관리팀)

▲ 사회복지대학원

주제 : AI시대의 스마트복지관 디지털 포용
일시 : 10월 26일 갈멜관 305호
강사 : 박영란 교수(강남대 시니어비지니스학과 특임)

▲ 보육대학원

주제 : 창조된 자의 창조성 ; AI시대, 영유아보육전문가의 역할
일시 : 10월 26일 일립관 설교실습실
강사 : 민경찬 대표(씨앗의 꿈 아트컴퍼니)

2026년 5차 이사회

평가감사실서 감사팀 독립

2026년 제5차 이사회가 10월 19일 오후 2시 밀알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사회는 기존의 평가감사실을 평가실 및 평가팀으로 분리하는 것과 감사 업무의 독립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총장 직속의 감사팀 신설을 의결하였다. 이와 함께 부설연구기관인 '인터넷신기술연구소'를 'AI융합연구소' 명칭으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도 통과시켰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가 운영 기준 반영을 통해 교직원 연가의 반반가를 2시간 단위 세분화 건도 의결하였다.

전안나 동문

「생성형 AI를 곁들인 쉽게 배워 바로 쓰는 사회복지 글쓰기」 출간



책글사람 대표 전안나 동문(사복, 2000학번)이 개정판 「생성형 AI를 곁들인 쉽게 배워 바로 쓰는 사회복지 글쓰기」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사회복지사가 현장이 필요로 하는 기획 단계에서 출발, 자료 조사와 초고 작성,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사회 문제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을 생성형 AI로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실질적인 업무용 글쓰기 규칙으로 현장 업무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도록 하였다.

전 동문은 「1천 권 독서법」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출간하였고 작가 외에 글쓰기 및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초청 특강 강사로도 맹활약 중이다.

「생성형 AI를 곁들인 쉽게 배워 바로 쓰는 사회복지 글쓰기」 인간과 복지 / 전안나 / 310P / 17,000원

학교 옆 당현천 일대 2026 노원달빛산책

'새로운 달' 주제 27개 작품 가을을 밝혀



▲ 전영일 작가의 작품 '기린'이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노원구(구청장 서준오)가 주관하고 우리 대학교가 후원하는 '2026 노원달빛산책'이 지난 10월 16일 개막, 11월 8일까지 당현천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올해 7회째를 맞는 노원달빛산책은 당현천 2㎞ 구간에 다양한 빛조각 작품을 선보이는 대표적인 가을 공공미술 축제다. '새로운 달(New Moon, New Wishes)'을 주제로 27개 작품이 '뭇 생명을 위한 기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바람',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바람'을 중심으로 환경과 생명, 평화와 연대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학교 일립관 뒤편에는 전영일의 '기린'과 엄혁용 작가의 '책 속에 품은 달' 등 5개 작품이 설치돼 가을 정취와 조화를 이루며 시선을 끌고 있다. 전영일 작가는 한반도에 필요한 소망을 기린의 모습에 투영, 행복한 시대에 대한 소망을 담아냈다고 소개하였다.

이번 행사 기간 중에 우리 대학 20명의 학우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시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故 이수병 전도사 3천만 원 유증(遺贈)

평소 학교 발전을 놓고 기도와 격려로 섬겨

지난 5월 소천한 중앙성서교회 이수병 명예전도사가 발전기금 3천만원을 유증(遺贈)하였다.

故 이수병 전도사는 24회(1979년) 동문으로 기독교교육과를 졸업하였으며 우리 대학 설립자인 故 강태국 박사가 세운 중앙성서교회에서 교육전도사와 심방전도사로 헌신을 이어왔다.

고인은 설립자의 목회 철학과 인생관에 순종, 복음 전도자의 참모습을 삶 속에 실천하였으며 평소에도 학교 발전을 위해 기도와 격려로 힘을 더해주었다. 장례는 중앙성서교회장(葬)으로 이뤄졌고 포천시 일동 중앙성서교회 묘소에 안장되었다.

총장의 편지 _ **최정권 총장**



설립자의 정신

총장의 공식적 업무는 설립자의 정신이 새겨진 교비 앞에서 시작됩니다. 학교 교정 구석에 있던 교비를 중앙으로 옮긴 후부터 매일 진행되는 일종의 예식입니다. 삶의 시작이 있듯이 하루의 업무의 시작을 교비 앞에서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의 성공과 아이성의 실패를 겪은 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특별한 예식을 갖게 됩니다. 그 예식은 가나안 땅 초입에 선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세의 율법입니다. 율법이 새겨진 돌을 제단 삼아 앞으로 가나안의 세속 문화 속에서 어떻게 동화되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은 세속의 물결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기에 그 자리는 다시 한번 모세의 율법의 정신을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년에 심는 곡초에서 백 년의 일꾼과 영원한 복음을 심기 위해 세워진 우리 대학의 정신을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지의 고민은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겠지만 본질을 담는 그릇의 변화는 있어야 한다는 존재와 시간의 관점에서 총장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매월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를 전자 결제할 때마다 다가오는 책임감과 나이 먹어가는 건물들의 유지비, 높은 에너지 비용과 미래 대학을 위해 투자해야 할 여러 사항이 교비 앞에 서 있는 저의 머릿속을 스치며 지나갑니다. 복음 전도자를 내보내며 학교의 정체성을 지켜가는데 자신의 생애를 드렸던 전임자들의 수고가 벌거벗은 생존의 틀을 넘어선 숭고한 헌신이었음을 되새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매일 아침 교비 앞에 서는 것은, 눈앞의 버거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근본적인 지향점을 고요히 다듬어가는 시간입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복음의 본질은 변함없이 간직하되, 그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은 차분하게 빚어내어 당년의 곡초를 넘어 백 년의 일꾼을 세우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교비 앞에 새겨진 설립자의 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흔들림 없이 이끄는 가장 고요하고도 단단한 이정표가 되어 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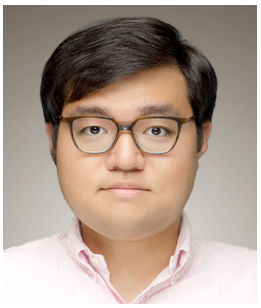




박태수 교수(성서학과)

교수칼럼

학생칼럼



박기범(성서학과 4)

100대 명산 도전기
산은 나에게 경외감과 장엄함을 가르쳤다

오랜 소원이었던 100대 명산 도전에 나섰다. 마음으로만 품었던 꿈을 행동으로 옮겨, 나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이었다.

새벽 3시 30분, 헤드랜턴의 불빛만이 칠흑 같은 산길을 밝혔다. 가빠진 숨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하얗게 번졌다. 금정산 정상에 섰을 때 하늘은 아직 어둠의 끝자락에 머물러 있었다. 5시 19분, 수평선 너머에서 옅은 분홍빛이 태어나더니 점점 짙은 붉음으로 물들며 바다와 하늘의 경계를 지워 버렸다. 태초의 광경을 보는 듯한 경이로움은 지금도 가슴 깊이 선명하다. 그리고 깊은 계곡과 웅장한 바위가 압도적인 비현실감을 선사하는 두타산. 기암괴석 사이 암벽 협곡에 설치된 마천루 발밑으로 아찔한 비경이 펼쳐졌다. 장엄한 절벽 앞에서 말은 사라지고, 오직 경외감만 남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생의 산은 설악산 공룡능선. 암릉들은 거대한 공룡의 등뼈처럼 끝없이 이어졌다. 쇠줄을 잡고 오르는 코스에 다리는 무겁게 가라 앉았고, 땀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다. 오르내림이 끝없는 능선 앞에서 나는 한 발조차 내딛기 버거운 작은 존재임을 깨달았다. 동시에 봉우리를 넘을 때마다 시야가 열리며, 겹겹이 이어진 산줄기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선 듯한 경외감으로 가득 찼다.

지금까지 55개의 산을 오르며 준비한 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철저한 준비는 극한 상황에서 체력을 대신한다. 배낭과 스틱, 무릎보호대와 등산화, 물과 이온 음료, 행동식, 헤드랜턴과 보조배터리, 밧줄 구간용 장갑, 여벌의 얇은 옷, 급격한 피로를 막아 줄 포도당 알약 하나까지. 모두 극한의 자연 앞에서 나를 지탱해 준 또 다른 나의 일부였다.

산이 내게 가르친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시작의 힘이다. 어둠 속에서 내디딘 첫걸음이 있었기에 정상의 새벽도 만날 수 있었다. 한 걸음씩, 한 봉우리씩, 산과 마주하는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호함을 견디는 연습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른다. 계획대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도 부지기수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함을 느낀다. 확신에 찼던 마음이 흔들리고, 분명했던 관계가 어느 순간 희미해지기도 한다. 우리는 삶이 확실하기를 바라지만 사실 확실한 것은 많지 않다.

불확실은 불안을 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정의하려 애쓴다. 계획하고 기준을 세우며 이것과 저것 사이에 선을 긋는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며 자신을 규정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 성공과 실패, 옳음과 그름을 구분한다. 그렇게 세상을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누면서 이해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낀다.

하지만 우리는 모호한 아날로그의 세계를 살아간다. 빨강과 파랑 사이의 스펙트럼에는 수많은 색이 있고 어디가 빨강이고 어디서부터 파랑인지 선을 긋기가 난감한 색도 있다. 삶도 그렇다. 좋은 사람도 잘못된 행동을 한다.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동시에 밉기도 하다. 행복한 순간에도 불안할 수 있고 힘겨운 시기에도 즐거운 일은 있다. 삶은 수많은 감정과 선택, 관계가 뒤섞인 채 흘러가고 때로는 그 순간이 무엇인지, 미처 정의하지 못한 하나의 미제로 남겨두기도. 세상을 나름 정의하는 일은 필요하고 유익하지만 세워 놓은 경계를 진실로 여길수록, 경계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고통스러워진다. 우리의 계획이 현실 그 자체는 아니며, 내린 정의 역시 언제든 수정될 수 있다. 세상은 우리의 구분보다 오묘하고, 사람은 우리가 붙인 이름보다 입체적이다.

세상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능력만큼이나 모호함을 견디는 능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잘 모르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불확실에 힘들다고 하기보다 알 수 없는 채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때로는 선을 긋기보다 그 사이로 어떤 색이 놓여 있는지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연습을 해보자. 어쩌면 그것이 모호함을 견디면서도, 세상에 놓인 다양한 색과 아름다움을 온전히 목도하는 방법일지 모른다.

반세호의 목양컬럼



반세호 목사
(성서대학교회 담임)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진영 한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지어집니다. 광야는 아직 길 위였고 내일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길을 걷는 백성 한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집은 누구의 강요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고, 그렇게 드려진 기름이 성막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광야의 깊은 밤에도 그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불을 지킨 건 큰 능력이 아니라 이름 없는 손길들이 드린 기름 한 방울, 한 방울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주방에서 따뜻한 밥상을 준비하는 손길, 교회학교 아이들 곁에서 기꺼이 낮아지는 선생님들,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여는 성가대와 찬양팀, 주차장과 안내석에서 환한 웃음으로 성도를 맞이하는 분들, 르호봇커피선교회의 향기로운 섬김, 강단을 아름답게 채우는 꽃꽂이, 정성껏 헌금을 헤아리는 수고까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땀 흘리며 기쁨으로 드린 그 모든 섬김이 우리 교회를 밝히는 기름입니다.

무엇보다 값진 드림은 기도의 불을 밝히는 일임을 믿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무릎 꿇는 분들, 주일 강단 사역을 위해 눈물로 중보하는 기도팀, 주중 기도 모임에 모여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분들. 그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 교회는 어떤 계절에도 식지 않았고, 이 강단이 날마다 은혜의 힘을 입었습니다. 담임목사로서 저는 그 기도의 빛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성막의 등불은 한 번 켜고 끝나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기름을 채워야 하는 불이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기도도 그러합니다. 때로 지치고 힘이 빠지는 날이 있겠지만, 주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작은 헌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오늘의 기름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지나는 길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기쁨으로 드리는 이들이 있어 늘 따뜻하게 빛나고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밝혀 주고 계신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148

가랑잎의 몸무게 신형건

가랑잎의 몸무게를 저울에 달면
'따스함'이라고 씌어진 눈금에
바늘이 머무를 것 같다.
그 따스한 몸무게 아래엔
잠자는 풀벌레 풀벌레 풀벌레……
꿈꾸는 풀씨 풀씨 풀씨……
제 몸을 갉아먹던 벌레까지도
포근히 감싸 주는
가랑잎의 몸무게를 저울에 달면
이번엔
'너그러움'이라고 씌어진 눈금에
바늘이 머무를 것 같다.



나뭇잎이 있는 가지의 클로즈업 - Unsplash의 무료 사진

가랑잎이 바스락, 저울 위로 내려앉았다. 저울은 가랑잎의 몸무게를 '따뜻함'이라 읽어냈다. 바짝 마른 건조함 속에 감춰진 온기를 저울은 헤아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바스락거리는 성질을 품은 가랑잎은 언어학적 관점에서도 그 특성이 그대로 나타난다. '바싹 마르다'라는 뜻의 어근 '갈-'에 작고 가벼운 느낌을 더하는 접미사 '-앙', 그리고 '잎'이 결합하여 '나무에서 떨어져 바싹 마른 활엽수의 잎'이라는 어원을 완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싹 마른 그 넓은 잎 아래에선 풀벌레가 잠을 자고 풀씨가 꿈을 꾸는 또 다른 세계가 시작된다. 메마름의 이면에 숨겨진 너그럽고 포근한 가랑잎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다.

바스락, 내가 저울 위로 내려앉는다. 세월에 치여 겉모습은 바싹 마르고 거칠어질지라도, 내면에는 누군가를 품어줄 온기 한 자락쯤은 남겨두는 것. 결국 우리가 이 계절을 지나며 잊지 말아야 할 마음의 온도일 것이다.

지역내 교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수' 강의가 진행 중이다.



대학어린이집

'찾아가는 연수' 기관에 선정

대학어린이집이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 2026년 교원 핵심역량 강화 사업 '찾아가는 연수'에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서울시 어린이집 중 3개 분야에 6개소만 선정될 만큼 치열하였고 상계백병원어린이집과 인원 및 장소를 협의, 함께 교육을 진행하였다.

연수는 전문 강사의 맞춤형 교육방식이며 우리는 '정서·심리 지원'을 중심으로 진행을 이어갔다. 교사들에게 영유아의 정서 및 심리 이해와 사례 분석, 지원 전략 수립 및 면담 등 현장이 요구하는 전문 역량을 제공해 주었다. 〔은혜반 이지혜 교사〕

오동준 관장이 '삼녀네 반찬'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하고 있다.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삼녀네 반찬'에 감사패 전달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은 16일 지역 내 취약계층의 식생활 지원을 11년간 이어온 '삼녀네 반찬'을 방문, 오동준 관장이 감사패를 전했다.

이번 감사패는 '삼녀네 반찬' 운영주가 건강상 이유로 폐업을 앞둔 상태에서 그동안 보여 준 나눔에 감사를 표하고자 마련됐다. 대표는 매주 금요일마다 반찬을 마련해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민과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가도록 힘과 사랑을 보내주었다. 향후 복지관과 협력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는데 아름다운 이웃으로 함께한 대표의 빠른 건강 회복을 기원한다. 〔이동재 사회복지사〕

남양주 주연 농장에서 온 가족이 함께 한 꿈빛 가족나들이



꿈빛어린이집

꿈빛 가족나들이

꿈빛어린이집은 27일, 남양주 주연 농장에서 '꿈빛 가족나들이'를 진행하였다.

유아들이 부모님과 함께 밤 마들렌을 만들고 허브 길을 산책하였으며 익은 밤을 주워 부모님과 나누며 가을의 풍성함을 느꼈다. 점심은 야외에 돗자리를 펴서 밥과 과일을 나누며 교사가 준비한 나뭇잎 왕관 만들기와 보물찾기로 모두가 자연 속에서 놀이를 즐기며 추억을 만들었다.

가족과 교사가 함께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행복한 만남을 공유한 시간이 됐다. 〔목련반 최호정 교사〕

중보 기도학교 1 기 과정을 은혜롭게 마친 훈련생들



성서대학교회

중보 기도학교 수료식

성서대학교회는 지난 3월부터 16주 과정의 중보 기도학교 1기 훈련을 시작하며 새로운 영적 여정의 시간을 다져왔다. 훈련생들은 개인을 넘어 이웃과 교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깊게 가졌다.

기도학교를 통해 중보자의 자세를 심층적으로 배웠고 응답 해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웃과 교회를 온전히 품고 섬김을 다한 영적 시간이 됐다. 16주의 기도훈련을 잘 마친 1기 훈련생들은 수료식을 통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를 깨달았다며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견고한 중보자로 서겠다는 등의 고백해 주었다. 〔홍성진 부목사〕

일일 별빛 캠프에 참여한 아동들이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월계지역아동센터

일일 별빛 캠프

월계지역아동센터는 16일 센터를 이용 중인 아동 21명과 함께 '일일 별빛 캠프'를 진행하였다.

밤 10시까지 놀이와 먹거리가 풍성하게 차려진 캠프는 뷔페 식사를 시작으로 레이스를 이어갔다. 식사 후 레크레이션 활동이 뜨겁게 이어졌고 서로의 장점을 발견해 가는 칭찬 릴레이와, 야간 놀이 등이 가을밤을 웃음과 뜨거운 함성으로 물들였다.

참석한 한 아동은 친구들과 늦게까지 맘껏 먹고 소리치며 스트레스를 쏟아 내 행복하였다며 이 같은 캠프가 매년 지속되기를 소망하였다. 〔유아랑 센터장〕

부모 힐링 프로그램에서 퍼스널 컬러 진단을 소개하고 있다.



상계백병원어린이집

부모와 함께 놀이 경험

상계백병원어린이집은 15일 부모와 교사가 자신을 돌아보고 활력을 얻는 「부모&교사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부모들은 양육의 일상을, 교사들은 보육 현장에서 잠시 벗어나 서로가 공감하는 이야기를 나누며 모처럼 홀가분한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퍼스널 컬러 진단을 통해 자신과 어울리는 색상을 파악하고, 직접 무드 등 만들기에서 개성과 감성을 섬세히 담아냈다.

이번 행사가 부모와 교사 모두에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을 느꼈고 가정과 어린이집의 유대감을 깊게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맑은반 박지혜 교사〕

불암산산림치유센터에 참여한 부모들이 산림치유를 즐기고 있다.



노원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 힐링 프로그램

노원육아종합지원센터는 23일 불암산산림치유센터에서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의 부모 및 양육자를 대상으로 부모 힐링 프로그램 '숲에서 만난 쉼'을 가졌다.

프로그램은 웃음 요법, 편백 휴식, 소리 명상 등 다양한 산림치유 활동으로 구성 되어있다. 참여자들은 자연 속에서 일상의 양육 부담을 잠시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돌보며 휴식과 재충전을 가졌다. 비슷한 양육 경험을 가진 부모들끼리 이야기로 공감하며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을 형성하였고 긍정적인 양육 에너지까지 충전하는 시간이 됐다.

〔임나리 특수교사〕

관내 보육교사에게 평가 준비를 위한 현장 라운딩이 진행 중이다.



상계5동어린이집

현장 라운딩

상계5동어린이집은 8일 관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평가제 준비를 돕기 위한 현장 라운딩을 가졌다. 현장 라운딩은 교사들에게 평가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며 우리 어린이집은 그동안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아 왔다.

평가에 앞서 주요 점검 사항 및 구체적인 실천 방법, 교실 환경과 공간 구성 등의 다양한 보육 운영을 소개하였다. 이번 라운딩은 현장 보육 경험에 기반한 축적된 노하우 전수로 평가의 접근과 이해를 넓혀준 시간이 됐다. 〔강혜진 교사〕

파주 헤이리 농원에서 개최된 늘사랑 가족 피크닉



늘사랑어린이집

늘사랑 가족 팜크닉

늘사랑어린이집은 27일 영유아와 가족이 함께 파주 헤이리 농원에서 '늘사랑 가족 팜크닉'을 진행하였다. 아이들과 부모가 참여하는 게임을 시작으로 이후 연령에 따라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다.

만 0~1세 영아들은 가족과 함께 산책을, 2~3세는 가을철 열매를 이용한 장식을 꾸몄다. 점심은 미리 준비한 돼지 바비큐와 통닭을 나누며 가족, 친구들과 이야기로 꽃을 피웠고 배 수확하기와 보물찾기, 행운권 추첨까지 이어졌다.

온 가족이 함께 가을을 느끼고 소중한 추억을 만든 시간이 되었다.

〔신나는반 김현애 교사〕

성폭력 피해자들이 풍경과 감정을 카메라에 담으며 감정을 치유 중이다.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집단상담 사진 프로그램

월계우리통합상담소에서 28일 성폭력 피해자들의 회복과 사회적 지지 자원 마련을 위해 집단상담 사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북서울꿈의숲, 국립민속박물관 등에서 풍경과 감정을 카메라에 담으며 자신의 정서와 내면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표현했다.

야외 촬영 후 사진들을 활용한 콜라주 작업을 통해 적절하게 사진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감정과 욕구의 시각화로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면서 내면 치유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맛본 시간이 됐다. 〔김지수 상담사〕

「성서대학돕기운동」 기부현황

www.bible.ac.kr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 2026년 9월 20일부터 2026년 10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 접 수 처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1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이수병(중앙성서교회)	3천만원(운영)	성서대학교회	350만원(운영)
승리교회	400만원(운영)	한국장학재단	300만원(장학)
김태일	350만원(운영)	초대교회	100만원(운영)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1구좌 김기쁨 김혜영 백향목 임수경
2구좌 김유경 박민주
5구좌 김진경 이병철

재학생 및 가족

1구좌 표하늘
2구좌 최경애
3구좌 최장현

효성교회

1구좌 김소야

일반

1구좌 이명순
5구좌 이미경

단체 및 기관

1구좌 정민영 조은혜

지역사회

5구좌 오윤아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1만원 강나경 강순성 강신용 강애솔 강옥경 강정희 강주옥 강한구 고대운 곽미화 곽원균 구본길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순길 권순웅 권유철 권정인 권하은 권희조 금동옥 금필규 기상혁 김가영 김다솔 김도훈 김두환 김명화 김명희 김무엘 김미진 김민서 김민정 김민음 김병렬 김선근 김세현 김수연 김수정 김순덕 김순화 김승훈 김승희 김연정 김영호 김예진 김유미 김은경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은혜 김응환 김일준 김재현 김정원 김정희 김정희 김종환 김 진 김진숙 김진영 김하은 김한나 김현정 김현철 김혜영 김화석 나민석 나선영 나예린 남범수 남성휘 노정식 노정현 노한나 도 만 류요한 류한나 문성령 문수란 문정혜 문홍철 박경수 박경진 박수진 박순임 박영모 박 원 박윤복 박재신 박정선 박종주 박지영 박창민 박태익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방지연 배은휘 배재원 배창경 배효순 백명희 백연옥 백연주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민경 서유미 서 융 서진희 서 현 서희영 손명배 손영화 송기철 송민규 송바울 송지민 송향숙 송현미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연정 신영옥 신은혜 신지은 심두한 심인자 심희남 안성민 안현정 양은숙 양주향 양지환 양혜영 엄미자 엄보영 연현숙 오세천 오찬미 오채엽 오현호 용아름 우종엽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수정 유영진 유주홍 윤정숙 윤지준 윤현중 이경란 이경일 이대환 이동혁 이두현 이문성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복희 이분옥 이상용 이상준 이상필 이선정 이세은 이수진 이신재 이안나 이연신 이영식 이용원 이윤아 이윤주 이은광 이정숙 이정윤 이정익 이정훈 이 진 이진경 이창호 이철승 이하람 이학준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혜란 이혜정 이화연 이환기 인지혜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장동명 장연정 장윤국 장은희 장익봉 장익심 장현숙 장호성 장희남 전명수 전명자 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전한나 정다연 정선도 정소영 정슬기 정영교 정은희 정인철 정재연 정주영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조소연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유민 조은경 조차현 조현석 주민자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채종원 최규봉 최민국 최서희 최선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예은 최은빛 최인호 최재봉 최종운 최주은 최진희 최현정 탁국현 탁윤석 하수현 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상장 한선희 한지희 한혜우 허영숙 홍명수 홍선호 홍성대 홍원기 홍정심 홍혜경 강해든이 설에스더 황보혜영 /손잡는교회

1만5천원 이예람

2만원 강은해 고난홍 곽지윤 구연민 국소영 권오진 길득희 김규리 김미나 김복녀 김성아 김성훈 김승례 김승희 김연정 김영래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유경 김은하 김재철 김정복 김종남 김종명 김태용 김현진 류충열 문혜진 민성희 박민주 박성주 박윤경 박재송 박준호 박혜숙 소경숙 손윤숙 송만호 신성철 신정섭 신화영 안선례 양연주 유미영 유의숙 윤광길 윤덕진 이광삼 이기주 이나연 이마리 이상복 이상진 이선경 이선영 이슬강 이승찬 이예원 이우진 이유미 이유진 이의선 이재은 이종임 이충희 이현우 임은희 임은희 장유정 장재원 전영희 정나나 정복자 정성민 정영용 정옥순 정 완 정인숙 조성진 조소정 주요한 최문정 최수지 최인경 최주형 최현우 최호정 탁명화 하지혜 허춘선 /등대교회

3만원 고은영 권서영 권오규 권은지 김윤정 민승철 박기혁 박문용 서성숙 성인선 양연선 윤문순 이길순 이다윤 이성은 이주연 이현지 임연식 장영훈 전지혜 조은경 차주엽 최소린 최은희 탁현정 태지선 홍진옥 황영숙 /좋은교회

4만원 박은성 박인순 박주은 배정환 신은진 임수경

5만원 강경옥 강명희 강성훈 김기숙 김명자 김진경 남영란 남정부 남희경 박정하 박찬혁 서명주 송복순 신상춘 안효진 유양숙 이기훈 이병철 이부호 이지은 최경환 최미숙 /성서밀알선교회

6만원 정동주

10만원 김선옥 김종숙 서광진 서수경 이인영 이정원 장은정 /가성교회/밀알교회 /이례장학/주향교회 /효성교회

11만원 유선미

12만원 성낙표

25만원 박예찬 임성묵

재학생 및 가족

1만원 강찬희 김윤영 김정녀 김진원 성정자 심희정 양은성 이동기 이미숙 이성란 이수진 이윤지 임경배 장영철 전계화 조윤경 지중배 한승천 한정화 홍상기 홍장훈 황미숙

2만원 강은덕 강현중 권영진 김선옥 김성안 김정숙 김지영 김지혜 김창환 김형태 문순용 박유순 박은영 송동식 송세희 신동숙 안차남 여진욱 연성희 오명이 유효진 이동훈 이미영 이선미 이승진 이은영 이지영 이채은 이혜란 임정용 장영순 조복임 조율이 최경애 최영숙 최유승 최장현 최장호 함은애

3만원 박보병 배정숙 전희문 최정규

4만원 김수진 전옥순

5만원 권오길 김희선 박선희 박인규 박훈희 손미연 송희경 안종헌 윤수호 이재현 이혜영

6만원 정주화

25만원 이민영

50만원 정태리/방주교회

교직원 및 가족

1만원 강신애 곽한나 권관희 김미영 김상일 김선준 김세진 김애란 김유진 김춘하 김형중 김호현 박남일 박덕자 박명우 박묘서 박주양 반우형 서광철 신 군 양승원 유성준 유연자 윤석훈

기부자 명단

이가영 임수아 임재혁 장경순
전귀선 정욱환 조성찬 진달래
2만원 강민경 강승현 고진주 권민주
김남준 김세원 김장호 문건희
문지예 민경은 박예진 반종원
배민정 안 호 오철송 이지민
장길정 장지순 정순애 정지용
조철남 최난영 한정숙
3만원 고윤정 권오섭 김창현 방진희
양희정 유수연 이소연 이철희
4만원 김덕원 윤혜진
5만원 구광면 김성호 김원빈 김현동
박상민 신재윤 양단아 유미나
이길형 이상일 장성희 장정순
전영호
6만원 권순범 신지수
7만원 김병수 임환석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권용준 김덕현
김소희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문무열 배진형 신금주 안창선
안현미 오은주 원영희 이민규
이성아 이슬기 장인순 조현진
조혜경 최사랑 최영태 최육열
최은희 현우석/김정원(신)
/김정원(영)
11만원 최지은
13만원 김웅기 김중완 이소정
14만원 김정숙
15만원 강규성 권경만 김은호 김희수
한진호
20만원 김승옥 김주아 김창원 박 선
안정선 정휘진
23만원 박태수
25만원 이강동
30만원 임지영
35만원 최선희
50만원 강우정.강 진

부설기관

3만원 박천순 변송이 안미희 유정현
장나혜
5만원 이인경
6만원 장나혜
10만원 김선영 박빛나 장수진 조지선
15만원 권정아 김화영
20만원 김신덕
40만원 지주나

권선제일교회

1만원 이상규

동광교회

1만원 김복례 한미희

밀알교회

1만원 서효정

삼일성서교회

1만원 김초롱 오성군 정혜란 한금순

서문교회

1만원 강선애 윤인호

성서대학교회

9천원 강유진 김영숙 오경모 정보연
정현숙 차옥제 탁경미
1만원 강경혜 오경원 유중엽 이가은
이경신 이대영 이대한 이정철
이지수 이진호
1만4천원 정태성
1만8천원 고경숙 고미숙 권은정 김봉춘
김사천 김선교 김애숙 김영숙B
김은미 김일선B 김지윤 김희자
민영빈 박영숙 박영신 박인숙
박천순 배성아 배성준 서영우
서 훈 손원자 안봉숙 양태환
오치숙 용정자 윤도진 윤재필
이경미 이관영 이길우 이무현
이소정 이승림 이영희 이정숙
이정자 이종옥 이행자 임용택
장근문 장은정 정나영 정선희
천재우 최용석 최인숙 한순애
허진순 황서린 황시온
2만7천원 김미정B 김용현 김혜련 김홍필
3만6천원 구영신 김동석 김민자 김배열
김상은 김성진 김인자 김일선A
박 선 박효민 반해빈 반해성
석경순 선종인 장기영 조한나
최영태
4만5천원 김순연 김순옥 노봉환 박은경
송재철 유형창
5만4천원 김현석 심화심 이정임 한충헌
9만원 길용희 김영헌 김유미A 박세건
반세호 이병윤 전명진 최대만
최순남 한진호
10만원 길용희/성서대학교회 장로회
16만2천원 고지현
18만원 이경신
27만원 김효정

성서선교회

1만원 열매맺는교회
2만원 금촌성서교회
5만원 동두천성서섬김교회
/세빛교회/푸른동산교회
10만원 다빛교회/삼일성서교회
100만원 초대교회
350만원 성서대학교회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김일섭 홍성호황병숙
2만원 반요셉

어린양교회

1만원 김정희
3만원 임윤창
5만원 어린양교회
7만원 이정선

일동성서교회

1만원 심미영
2만원 박문수
5만원 일동성서교회
33만원 표길홍

장자교회

4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

주향교회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중앙성서교회

1만원 고세정 김세현 김순애 김영미
김용술 김의자 김정희 김춘배
박혜원 안승수 이수연 이승학
이해영 최영란 한진경
2만원 강영애.신한성/이준구.안춘자
3만원 권순호 김덕규
4만원 오근수
5만원 이경식 이우근 한금례
/중앙성서교회 원로·은퇴장로회
10만원 김용철 김윤규 송인숙 현희철
/중앙성서교회 바울선교회
15만원 이혜선
24만원 황인돈.김순자
3천만원 이수병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안지선

풍암교회

1만원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화도드림교회

1만원 권순실
5만원 화도드림교회

효성교회

1만원 김소야
2만원 한옥경
3만원 진효숙

일 반

1만원 구필례 권숙영 권창석 김기수
김명호 김미라 김범설 김삼례
김석균 김순규 김양권 김유벽
김인호 김천수 김향숙 김 현
김혜란 김효진 노형복 문해영
박미숙 박영미 박영희 박혜신
백도기 백은정 서민석 안애숙
엄정호 오미라 오현숙 오형준
유금례 유화실 이관헌 이명순
이사랑 이성영 이성희 이원주
이유진 이재하 이재헌 임동화
장병길 전형식 조동빈 조목장
조성민 조언상 조여원 조은해
진윤승 최경숙 최범식 최영훈
최은실 허수보 황영수
/한국인재인증센터
/JIN GUOHUA
2만원 강상래 권소영 길옥석 김동석
김민기 김상현 김성래 김윤숙
박기숙 박명숙 박수명 박재균
서경숙 서병준 서성원 안은숙
윤수현 윤준영 이연식 이일신
이재한 이태일 임홍직 장단희
정주아 정 진 조혜령 최국열
최준서 최지연 한동훈 허정안
홍춘호/행복한교회
3만원 장문석 정미옥 추영철
/에덴종탑사
4만원 정형채
5만원 김민경 석지현 이진형 이천화
조예영 주은자 최지선
10만원 구탁본 길민정 김옥례 안순복
18만7천원 박종걸
40만원 박순정
350만원 김태일

단체 및 기관

1만원 김포예수사랑교회
/꿈꾸는교회
/늘푸른교회/맘키즈푸드
/목양교회/무진인터내셔날
/주님손교회/행복한교회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
/(주)에이스외식산업
/도새기짱
/바르고복된교회/열방교회
3만원 동신자원/우리교회
/의정부좋은나무교회
/주식회사 이수전기
4만원 플랜팅시즈
5만원 김한길/가학교회/녹수교회
/다드림교회/미사목민교회
/사랑샘교회/상일교회
/행전교회
10만원 (주)바다나라
/(주)이레E&C이레디자인
/구리중앙교회/도봉성산교회
/동산교회/두암산업(주)
/상록교회
/섬기는교회/성복중앙교회
/의정부성암교회
/의정부제일교회
/전주서부중앙교회/청평교회
/평안교회
15만3천원 우리회
20만원 전하석/(주)소원기건
/인천제2교회
30만원 한민제일교회
300만원 한국장학재단
400만원 승리교회

지역사회

1만원 김은지 김하예 서애진 송유정
오동준 유주연 유희주 이유리
이은정
2만원 윤종찬 허성보
3만원 구세란 문유나 박미라 오윤아
5만원 이지연 진양희
/월계지역아동센터
7만원 김선화
35만원 오동준
70만원 임재택

소계(20260921~20261020)
48,204,300
누계(20260301~20261020)
664,795,592

한국성서대학교 10월 『발전후원금』

일반(일시불) 후원자 (합계 47,696,800원)

중앙성서교회(이수병) 30,000,000원 | 승리교회 4,000,000원 | 성서대학교회 3,500,000원 | 김태일 3,500,000원 | 한국장학재단 3,000,000원
총학생회 700,000원 | 임재택 600,000원 | 방주교회 500,000원 | 동서환경 500,000원
표길홍 280,000원 | 임성묵 250,000원 | 이민영 250,000원 | 우리회 150,000원 | 박종걸 136,800원 | 황인돈·김순자 120,000원
길민정 136,800원 | 구탁본 100,000원 | 노형복 10,000원

약정 후원자 (합계 25구좌, 연간 납입예정액 3,000,000원)

5구좌 성서대학 장로회, 이미경 | 3구좌 이소정, 최장현
2구좌 김종명, 오윤아 | 1구좌 윤석훈, 최민국, 이명순, 표하늘, 윤혜진

일시납 누계(2026.3.1~2026.10.24) **463,654,592원** | **약정자 누계**(2026.3.1.~2026.10.24) **454구좌** | **연간 납입 예정액 54,480,000원**